

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2.

발 의 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박 정
김관영 · 이동섭 · 최도자
전혜숙 · 김경진 · 김중로
김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.

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
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
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
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52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